



강생(Incarnation)의 길을 따라

「강생의 길을 따라」 창간호를 열며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1코린 9,16).”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불속으로라도 뛰어들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보물인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전 생애에 걸친 선교 활동의 열정이 어디
서 비롯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삶을 통한 복음 선포’로 관상적 활동인 동시에 활동적인 관상입니다. 기도 생활이 선교의 출발
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의’와 ‘사랑 실천’, 그리고 하느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하
느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그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장 중요한 선교 방법은 마더 데레사가 보여 준 소박하면서도 영웅적인 애덕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수도회는 6개국(볼리비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이태리, 중국,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
다. 선교의 역사를 굳이 말하자면 길게는 20 여년, 짧게는 3년 남짓합니다. 그동안 회보나 소비녀지를 통
해 해외에서의 선교 활동을 접하고 공유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총원에서 「강생의 길을 따라」라는 이름으
로 해외 선교지를 별도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선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일반인들의 관심과 적극
적인 참여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 모든 성가소비녀들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 첫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첫 소식지인지라 해외 각 분원 공동
체에서 소임하고 있는 몇몇 수녀님들의 개인적인 선교 체험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생의 길을 따
라」가 나아가는 여정 속에 수녀님들의 기도 그리고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연대를 기다리
며, 성가소비녀회 설립자이신 성 베드로 신부님이 지니셨던 선교 열정이 모든 이의 마음 안에서 불타오르
기를 기도합니다.

황홀한 부르심에…….

류 베르뇌시메온 수녀

그분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극복하고 철저한 비움으로 내 자신을 성장케 하며, 오롯이 의탁한 삶을 통하여 새로운 나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줍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뒤돌아보니 배운 것도 많았지만 피를 말리는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선교의 삶이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자 무모한 모험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타국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은 물론이고 얼마나 더 나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갈등과 두려움, 긴장감을 껴안고 살아야 했는지……. 그렇다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결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힘겨운 인고의 시간을 이겨 내야만 찾아오는 황홀한 기쁨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 특히 해외 선교사로서의 삶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바라볼 수 있으며, 새로운 기운과 도전으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조건 없이 적응해야 하는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곳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라 수도자의 신분을 알려서도 안 되며 자국민과의 접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더욱 조심스럽고 하루하루가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 갈수가 없는 곳입니다. 선교지에서의 우리들은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어느 수사님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생활하면서 필요한 담력과 용기, 신덕을 키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군인이나 경찰을 보기만 해도 긴장감 속에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 제복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순박한 미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나의 생각과 느낌이 변화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갈등과 두려움, 긴장감을 이겨 내야만 했습니다. 여러 번 숙소를 옮겨야 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의 삶이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야 하는 순례자의 여정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낯설음은 많은 에너지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포기하여야 할 것과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무모하게 나



선 중년기의 도전이었지만 “오로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항상 자문하고 대답하면서 수도자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 ‘황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결코 나를 실망케 하거나 병들게 하지 않았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부르심은 나를 성숙케 하는 축복의 장소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자신과의 싸움은 결국 나와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리는 소중한 희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새로운 식구(베트남 성소자)와 함께 지내게 되어 염려가 앞섰지만 우리 각자에게 맞게끔 그분께서 준비시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한결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한국에서는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사도직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데 이곳에서는 현지인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주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선물로 하나둘씩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획은 인간이 세우고 결정은 아훼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에 그동안 왜 그렇게 애를 태우고 힘겨워 했는지…….

언젠가는 주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고, 그 힘은 내가 서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이웃 안에서 사랑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어 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지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 안으로.....’

정 정혜엘리사벳 수녀

스페인어를 처음 배울 때 '느낌표와 물음표가 문장 앞에 거꾸로 쓰여 있으면 스페인어다.'라는 사실과 알파벳만 간신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르헨티나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큰 어린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들이라도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들려오기는 해도 들을 수 없는 병어리와 같았습니다. 다행히 이곳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스페인어에 서툴다고 하여도 야랑곳 하지 않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경우가 많으며 말이 필요하지 않은 때도 있지만 간혹 질문을 할 때에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살면서 나 자신이 개인의 신분이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동양인 수녀에 대한 궁금함으로 먼저 나라, 종교, 수도회, 그리고 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결국 내 자신이 한국과 가톨릭 그리고 성가소비녀회의 대표이며 그 다음으로 개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뚫어저라고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보면 그들과 다르기는 다른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의 생활은 언어부터 시작하여 계절, 문화 등 아주 작은 것부터 배우고 익히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내 입을 통하여 나간 단어는 나의 말이 되었지만 듣거나 글로써 접했던 단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도 있지만 당황하여 실수를 하게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데에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하느님의 사랑과 공동체가 있었기에 견디어 낼 수 있었습니다.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 자체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동안 몸에 배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불쑥불쑥 몸에 배인 행동들로 인해 부딪히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화가 난다거나 '예'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이 지켜질 때서야 믿게 되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음 안에서 요동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잔잔히 물결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나 자신으로 인해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익숙해 졌고 그 생활에 젖어 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음을. 그때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들을 내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신 선교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말씀으로 들어와 이곳 생활을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가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나는 제자리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내 안으로 끌어넣으려 했습니다. 성체 앞에서 공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골몰히 생각 하다가 문득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영성체 받을 어린이는 많은데 시스템이나 교리 그리고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망도 하였습니다. 주님께 맡기기 보다는 뭔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평화가 찾아왔음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였으며 더 이상 물질에 매달리지 않게 해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선교사는 씨 뿌리는 사람이니 수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설립자 신부님께서도 "수도자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씨 뿌리는 일이지 수확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주님께서 열심히 수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실수와 경험이 쌓이면서 적응할 수 있는 눈이 떠지고 조금씩 변하면서 성장한 모습으로 그들 안에 스며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원활한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적절하게 나의 입을 열어 주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의 손을 잡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저 분도 김치가 필요해요"

아르헨티나 교포사목 / 오 클라우디아 수녀

어

느닷 3년이라는 훌쩍 지나 버린 시간이 되었지만

내 생애 처음 나서는 선교사로서 그것도 지구 반대편의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초행길은 기대와 설렘, 두려움을 안고 출발한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실은 몰락하였지만 부국(富國)으로 살았던 패튼의 잔재로 생활 속에서의 느긋함과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여가와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지금처럼 주변국의 볼리비아나 페루아노들이 대거 몰려오지 않았던 70년대 만해도 집 앞을 지나가는 한국 사람을 발견하면 함께 식사를 나눌 정도로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정서에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물질적인 변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힘들고 숨 가빴던 이민생활을 지내오면서 새겨진 상처는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어려운 가운데에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거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한 독거노인들의 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본당의 빈첸시오회는 그들을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김치를 담아드리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김치를 받을 대상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이거나 혼자 사는 형제(이혼율이 높다)님 등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0여 가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60여 가구로 늘어났으며 5kg 씩 봉투에 담아 이름을 붙여 놓고 매월 첫째 주일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김치 담는 날은 마치 대축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이 날 만큼은 빈첸시오회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배추 절이기, 무채 썰기, 배추 씻기 등은 형제님들이 전담하였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바빠 움직이는 손길을 보면 “주님, 주님의 사업은 놀랍기만 합니다.” 하는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성이 대접받는 나라이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한국 남자들이더니만 빈첸시오 활동을 통하여 이들에게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은 올 해로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성

금으로 지원하거나 때로는 자신도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고자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신만이 고통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긍심이 생기고 스스로 치유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향한 따뜻한 기운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복음적 증거의 불이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서 타오르도록 서로 서로의 불을 지펴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도약으로

일 년 반 전(前), 본당에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말다툼으로 인한 불편함과 굳어진 표정들이 지속되면서 편안해야 할 성당에 신자들의 발걸음도 줄어 들고 마치 방치된 빈집 같은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위하여 보좌 신부님과 함께 기도와 피정을 통하여 복음적인 시각을 강화하며 선한 에너지를 결집시켜 나갔으며 단체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잠시 방향을 잃은 듯 했지만 공동체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성당에 대한 애정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후, 성전뿐만 아니라 분명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새로워 졌으리라 확신합니다. 강의 범람이 흠을 파서 발을 일구듯이 시련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파서 갈아주어 도약이 되는 기회가 되었고 자립심도 생기고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부활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 이민 와서 보고 들은 경험이 많아 사고(思考)가 넓어졌으려니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견문을 넓히고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선택으로 초창기 1세대나 1.5세대들은 주위를 돌아 볼 여유가 없었기에 아르헨티나의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하며 서로의 삶을 이야기 하는 나눔의 자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 말, 한국 음식, 한국 친구, 한국 성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여 살다 보니 넓은 사고는 고사하고 사소한 것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2세대 자녀들은 전적으로 아르헨티노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다보니 부모와 자녀 간의 괴리감은 점점 커져가고 앞으로 2세대, 3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이제 교포사목도 준비된 성직자, 수도자가 파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생의 길을 따라

최 글라렛 수녀

예수님 강생의

씨앗을 심고 가꾸며

희망의 홀씨로 세상 곳곳에

‘얼씨구, 절씨구, 풍년일세!

볼리비아 땅에서 소비녀들이 허리 굽혀 흙을 고르고 잡풀을 뽑아내며 강생의 씨앗을 뿌리니 하느님이 보우하사 태양의 뜨거운 열기 속에 연초록 벼이삭들은 금빛으로 영글어 가며 우리키만큼 자라났습니다. 스치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이삭 소리는 더위를 잊게 해주고,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들은 강생의 영성으로 다가와 주민들과 가까이 지내라는 음성으로 들려 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그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그들의 주업인 쌀농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글어 가는 이삭들을 새들이 날아와 쪼아 먹는 바람에 허수아비는 아니더라도 장대에 비닐을 걸어 알곳은 새들을 쫓아도 보았지만 먹이를 얻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날아드는 새들에게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지은 농사를 새들에게 빼앗기고 나면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고, 나오는 한 숨 쉬며 한탄하기를 수차례 했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쌀농사를 짓느니 사서 먹는 것이 낫다는 소리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떼들이 지나간 뒤에도 어렵사리 남아있는 누런 벼들을 어루만지며 정성을 기울이다 보니 기특하게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쌀 수확은 신자들과 공부방 아이들이 함께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돕고 있었던 아이들이기에 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확한 것을 모아 보니 한 자루하고 반이나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강생의 쌀자루이므로 가난한 이들과 사랑의 나눔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선교의 참맛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쌀농사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까지 새들을 쫓아내고, 잡풀들을 뽑고, 작렬하는 태양의 열기 아래 쏟아지는 땀방울을 건디어 내야만 한 톨의 쌀을 손에 쥌 수 있습

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가난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시간, 하루 한 끼만을 때우는 아이들을 보며 그 가정의 뒤편으로만 여겼던 냉정함, 낮에는 껌질이 터져 팔알을 잃어버리기에 밤새 달 빛 아래에서 수확하여 한 알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안타까움, 일하다가 잘못하여 개미집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개미떼가 달려들어 도망가는 수난, 벌들에게 쏘여 온통 부어오른 얼굴로 병원을 찾아가는 상황들 앞에서 처음에 저는 함께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함께 하면서 익어갈수록 점점 고개 숙이는 벼이삭처럼 겸손되이 받아들이는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가난으로 인한 고통의 시대적 징표를 읽어내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도직을 신설하셨던 설립자 성 신부님의 영성을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인한 선교사로 자리매김하고,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인도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저를 당신의 구원 계획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기에 선교의 삶으로 초대받은 저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강생의 씨앗을 심고 가꾸며 희망의 홀씨로 세상 곳곳에 전달하렵니다.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공동체

국제로터리클럽 부에노스아이레스 여성지부로부터 '올해의 사회봉사상' 수상

지난 6월 12일 알바레스 병원 공동체는 로터리클럽 부에노스아이레스 여성지부로 부터 은클로버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이 상은 1905년에 창립되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로터리 클럽의 산피아고 아르뚜시 지부장 임기 당시인 1980년 창립 7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연환경, 의학, 사회봉사, 마약중독 예방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공이 널리 인정된 여성들을 선정해 '은클로버' 상을 수상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수도회가 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한 것입니다.

환우들을 돌본다는 생각보다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강생의 영성을 살아가는 소비녀로서의 사명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성모님의 겸손한 모습의 삶이 되려고 했는데 알바레스 병원 원목 사제인 안드레스 신부님의 추천으로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이곳 병원에 수녀들이 없었는데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교님일 때, 몇 군데의 수도원에 초청을 하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구 반대쪽의 먼 나라로부터 수녀들이 와서 말도 하나도 못하면서 환자들을 만나고, 환자들에게 밥 먹는 것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면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환자들을 친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수녀들은 20년 동안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해왔다.” 는 내용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봉사 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설립자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므로 그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